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

김 미 숙[†] 오 수 성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강강술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한국적 집단 예술 치유의 전형을 발견하고자 한 경험적 연구 결과물이다. 광주 전남지역의 성인 16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참고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내면의 억압(한, 단절감, 사는 재미 상실 등)과 창조적 역동(자기 존재감 확인, 자기표현 요구 등)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집단 신명'으로 풀어내었다. 그 과정에는 강강술래의 '예술적 특성 요인'과 '집단역동 요인'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강강술래의 '손에 손을 잡고 뛰며 돈다'라는 행위적 외연은 '집단의 일체감 고양, 반복적 행위의 주술성, 원형(circle)의 상징성과 시간성'이라는 내면적 의미의 확장을 통해 참여자들의 심리역동의 질적 고양을 돕는다. 이를 통해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씻김', '관계회복'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강술래 과정에는 체험 호감도와 심리역동 변화수준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행동 및 반응 유형으로 '역동 회피형', '예술과 집단호소형', '역동적 자기 실현형'의 세 유형이 존재하였다. 강강술래 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체계화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심리 건강문화와 관련하여 예방적, 치유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다가서는 예술 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적 지침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강강술래, 치유, 예술치료, 질적 연구, 근거이론, 집단 신명, 한국 사람들

[†] 교신저자: 김미숙,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E-mail: cosmos3372@hanmail.net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관계와 소통을 지향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로운 삶과 자기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관계와 소통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심리건강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심리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는 가운데 심리 치유¹⁾적 접근에 있어서 인간의 내적 경험세계에 대한 공감적이고 주관적인 관찰을 중시하고, 다원주의가 들어서면서 여러 양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서구의 상담이론에서 정신분석적, 행동적, 인간중심적 기법 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상담학자들은 제4의 이론과 방법으로 문화중심 상담을 제시하였다(Pedersen & Ivey, 1993). 이러한 시각은 여러 문화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문화의 고유한 차원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치유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구조, 기대하는 행동 변화와 그 경험의 과정 그리고 치유목표 달성을 위한 중재과정에서 내담자의 문화가 지닌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본 연구자는 치유(healing)와 치료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한다. 치료는 임상장면에서 상담자나 치료자의 권위가 중시되고 구조화된 틀을 가지며 문제나 증상중심의 치료적 개입이 중시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반면, 치유라는 개념은 내담자와 치유사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기성장과 치유로 나아가도록 돕는 구조, 환경, 문화 등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임상적 현장을 포괄하여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치유'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 역사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심에 둔 심리학적 연구동향(한규석, 최상진, 2008; 한민, 한성열, 2007)과 예술심리학과 예술 치료학(이모영, 2004; 김진숙, 2005; 김나영, 2004; 이후경, 2000)의 대두가 이와 관련이 있다. 한국인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유적 접근에 있어서도 서구 심리학 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한국인의 생활 정서와 문화를 존중하여 심리건강 차원의 보살핌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김미숙, 오수성, 2007; 김미숙, 2007; 오진미, 2001; 이부영, 1970). 이와 관련하여 최상진(2007)은 현대 심리학이 과도한 세분화로 인해 현상의 통태성(Ganzheit)을 해치거나 현상의 역동성을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많으며, 심리학이 몸과 마음과 환경의 역동적인 통합을 주도하는 통합적 생태주의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규석(2002)은 심리학자들이 문화의 차이에 대한 평면적 비교에서 벗어나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며, 문화라는 환경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와 공동체의 심리현상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적 색깔을 지닌 현상의 작용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다가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영역을 망라한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 치유모델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강술래는 한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적 심성이 예술적 요소를 매개로 종합적인 놀이 형태로 풀어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 춤이자 예술 문화로서 현대 집단 예술치유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많다.

Fetterman(1989)은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총체이며,

그것은 일종의 생활양식이자 사고 및 행동양식”이라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강술래는 한국사회에서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특정한 문화매개의 영역에 속한 의식과 행위의 축적된 산물로서 강강술래 경험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문화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험자들의 심리역동과 관련하여 예술치유문화로서의 해석적 접근도 가능하다. 단순히 언어적 상담차원을 넘어서서 비언어적 체험중심의 문화(한국적 예술체험, 참선, 요가 등)와 생태적인 생활문화(황토 집, 천연염색, 다도, 우리 먹거리, 숲 명상 등)를 접목하는 통합적인 치유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문화에 기초한 치유프로그램으로서 강강술래 경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에서 노래와 춤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무일체의 민속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 8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현장에서 연행되고 있는 강강술래는 이러한 과정적 흐름을 바탕에 두고, 강강술래를 실시하는 상황과 강강술래 체험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요구를 존중하여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시행되고 있다. 강강술래는 한국인의 미학과 정서가 깊게 배인 삶의 문화로서 민중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왔던 생활 속의 민속 문화이다. 이를 한국 춤의 신명성과 치유성 측면에서 보면, 양종승(2002)은 한국 춤이 겉으로는 동적인 춤인 것 같지만 아주 정적이며 내면성이 강한 신명의 춤으로 춤꾼은 춤을 추어 무엇인가를 뱉힌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 춤은 흥을 돋우는 춤으로 춤꾼과 관객이 어울림의 대동적인 난장판에서

춤의 완성을 피하고 춤의 흐름 상황을 ‘얼씨구’, ‘잘 한다’, ‘좋다’ 등의 추임새로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체의 한과 슬픔도 함께 풀어낸다고 주장한다. 이운선(2004)은 강강술래가 문화인자를 다층적으로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인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큰 술래판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신명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강강술래는 한풀이의 과정이자 내면의 집단 무의식적 흥의 동시적 발현을 통해 체험자들의 심리적 요구를 수렴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강강술래는 한국인의 내면의 정서가 정중동(靜中動)의 미(美)로 풀어지는 치유적인 춤이자, 한(恨)과 신명(神明)정서 중심의 집단 예술치유문화로서 그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술치료는 인간의 심신 통합을 위해 춤, 미술, 음악, 연극, 놀이, 시, 원예 등을 심리치료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술치료와 관련하여 노환홍(2007)은 작품을 형상화 시키는 과정 속에 내재된 미학의 특성과 자율성 혹은 개방성을 통해 총체적 자아로 개인을 회복시키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 한다고 하였다. Jung은 심적 과정(心的 過程)으로서 심리학이 문학이나 예술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예술 창조자의 심성은 상징을 통해서 예술작품세계 속에 드러나기에 마음의 과학은 예술작품의 심리적 구조와 예술 창조자의 심리적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이부영, 1998). Wallace(1987)는 비언어적이고 이미지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메시지 탐구에는 시각적 예술, 소리, 동작, 놀이 등이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강술래는 삶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삶의 전형으로 참여자 내면의 억압과 흥의 표출을 도울 수 있는 개인치유의 춤이자,

통과의례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이를 대체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한국인에게 심리건강과 관련하여 미래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강강술래는 인류학, 민속학, 예술학 등의 영역에서 널리 다루어져 왔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 변화되는 사회 문화 구조적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적 집단예술치유의 전형적 모델로서 강강술래에 주목했고,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구성요인과 심리적 변인들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개발할 필요를 느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강술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실체이론²⁾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강강술래 참여자들의 체험 동기를 그들의 삶의 배경과 심리역동으로부터 알아간다. 둘째, 강강술래 경험의 구조와 절차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심현상과 관련된 상황적 맥락, 매개 변인, 각종 영향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알아본다. 셋째, 강강술래 경험 과정에 흐르는 주요한 정서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적 정서중심 체험의 심리적 구성요인과 활성화과정을 알아본다. 넷째, 강강술래 경험이 가져온 심리역동 변화를 알아보고, 강강술래 경험에서 핵심이 되는 사회 심리적 과정을 밝힌다. 다섯째, 이를 토대로 강강술래 경험과정에 관한 이론을 개발

한다. 강강술래 경험의 의미와 사회 심리적 과정을 깊게 이해한다면 한국인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 및 심리치유 장면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다가서는 예술치유적인 접근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강술래라는 집단 예술 경험에 관한 실체이론은 향후 강강술래를 변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표 1 참조). 참여자는 강강술래를 한번 이상 직접 체험한 적이 있으며, 경험의 의미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는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총 16명으로 개별 심층면담 참여자 9명과 2개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³⁾ 참여자 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개인의 역사와 경험, 심리 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기대했고, 초점집단 면담

2)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 실체이론은 체계적인 귀납적 자료수집과 분석, 재확인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 환자간호, 치료적 접촉과 같은 경험적 실체적 영역 등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실무이론이다(김소선, 2003, 69쪽).

3) 초점집단연구란 토론 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연구자가 토의 주제를 제공하여 집단토론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여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윤택림, 2004). 본 연구자는 본문에서 초점집단 연구를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FGI'로 표시하며, 진도 소포리 팀은 FGI 1, 무안 팀은 FGI 2로 표시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사례	성별	연령	직업	경험횟수	자료수집		
					면담횟수 및 방법	사전질문지	이미지연상검사
1	여	40대 말	교사	다수	4/개별면담	실시	그림/동작/시/ 단어연상과제
2	남	40대 중	교사	다수	4/개별면담	실시	그림/단어연상과제
3	남	40대 중	문화 활동가	다수	2/개별면담	실시안함	실시안함
4	여	30대 초	한국춤꾼	다수	1/개별면담	실시	그림/ 동작
5	남	40대 중	교사	다수	2/개별면담	실시안함	단어연상과제
6	남	50대초	목사	다수	1/개별면담	실시안함	그림/ 4행시/ 단어연상과제
7	남	50대 중	농부	2-3회	1/개별면담	실시안함	그림
8	남	40대 초	교사	다수	2/개별면담	실시안함	그림/단어연상과제
9	남	40대 초	농부	다수	2/개별면담	실시	노래
10	남	40대 초	건축가	2-3회	1/ FGI 2	실시	그림/4행시
11	여	30대 말	전업주부	2-3회	1/ FGI 2	실시	그림/4행시
12	남	40대 초	회사원	2-3회	1/ FGI 2	실시	그림/4행시
13	여	30대 중	전업주부	1-2회	1/FGI 2	실시	그림/4행시
14	여	60대말	농부	다수	1/FGI 1	실시안함	그림, 노래
15	여	50대말	농부	다수	1/FGI 1	실시안함	그림
16	여	50대말	농부	다수	1/FGI 1	실시안함	그림, 노래

을 통해서도 참여자간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과 집단의 요구, 상호 작용, 다양한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자 선정지역과 관련하여 광주, 나주, 무안, 해남, 진도 등 광주와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은 아직도 활발하게 강강술래가 전형적인 형태와 창조적 변형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곳이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도구 및 자료 수집 과정

강강술래 경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개방형질문지를 이용하여 강강술래 체험에서 얻어지는 심리변화들의 원인 및 과정, 신체와 정서 및 사고, 행동의 변화 등에 대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과정에서 강강술래 체험의 이미지를 의식적 차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강강술래 체험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림, 동작, 단어연상과제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기보고식 개방형 질문지

자기 보고식 개방형 질문지는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를 추출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연구 주제를 압축해가고 좋은 정보원을 찾고자하는 예비조사와 이후 본 연구의 심층면담의 기본 틀로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자기보고식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에는 강강술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경험, 주요정서 그리고 적용측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구조화 면담

면담은 연구자가 구술자와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만드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되어 현재의 삶에의 만족도, 심리역동, 참여배경과 계기, 체험과정, 영향요인 그리고 결과 등의 대략적인 질문을 가지고 경험 과정의 사회 심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차 질문의 주요내용>

- 당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들려주세요.
- 살면서 마음이 힘들다 느낄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 강강술래를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요?
- 실제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신체, 기분, 생각, 행동 등).

<2차 질문의 예>

- 당신은 생활의 심정을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그 구체적 상황과 심리상태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안에서 흥이 터져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숲과 사람이 강강술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면담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범위로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은 처음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질문(1차 질문)을 하고 관련 개념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점차 개념 간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2차 질문을 하였다. 2차 질문은 1차 질문 후에 자연스럽게 심화된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여러 번의 면담과정을 거친 심층면담 참여자의 경우는 1차면담 후 1-2개월 후에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질문의 형식인 ‘어떻게’, ‘만약 ~ 한다면’ 그리고 ‘무엇이’를 더해서 구성된 질문의 형식을 취했다. 연구자는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과 의도에 집중하며 능동적으로 경청하며 면담을 진행했다.

이미지 연상검사

심층면담과정에서 체험의 의미 확장을 위해 강강술래 체험의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하기, 그림그리기 그리고 단어 연상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로 강강술래 경험을 보고한 후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도화지(A4)와 크레파스, 색연필, 필기도구, 사인펜을 주었다. 그리고 강강술래 체험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돕고, 그 그림을 함께 보면서 연상되는 단어를 찾아내거나 다른 동작 표현을 격려하며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참조).



경험의 느낌 1 (해석 전)



경험의 느낌 2 (해석 후)

그림 1. 강강술래 경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사례 1)

분석 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가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강술래 경험과 같은 예술적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 예술이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 예술경험의 개인 차이와 그 역동성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질적 분석은 예술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측면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강강술래는 민속학, 예술학,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객관적으로 현상을 접근하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왔기에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의 직접적인 언어로 강강술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강강술래 경험의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드물다. 강강술래는 참여자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자 사적인 체험이기에 연구자가 이

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강강술래 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밝히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강강술래를 활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이론적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되어 개념과 변인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사회 심리적 과정을 밝혀주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설적 이론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분석 절차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자료인 개방형 질문지, 전사한 녹취록 기록, 체험관련 그림 및 사진 자료, 문헌분석, 연구자 메모노트 등을 놓고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원 자료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틀을 내오도록 노력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분석, 상황모형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각 분석단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분석 단계

분석단계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분석	상황모형
목적	· 이론화를 위한 개념추출 및 범주화	· 각 범주들 간의 관계 설명	· 핵심범주 파악 및 가설적 상관관계정형화	· 구조적 상황과 조건에 따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흐름 파악	· 연구현상의 사회적 위상 고찰
방법	· 원 자료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속성과 차원을 파악하고 개념 도출 및 범주화	· 근거이론의 틀 속에서 재설정	·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관련성 파악 · 가설적 관계 정형화 및 유형화	· 축 코딩의 일부로서 단계(Phases)나 절차(stages)를 찾아보는 것	· 강강술래의 치유 경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까지 고려함
결과	· 강강술래의 치유 경험과 관련된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도출	· 강강술래의 치유 경험 과정에 대한 구성 요소 및 모형 도출	· 강강술래 참여자의 행동패턴과 관련된 3개의 유형도출	· 강강술래 치유 경험의 ‘과정’ 도출	· 강강술래 치유 경험의 상황모형 도출

결 과

강강술래의 치유경험과 관련된 면담 자료를 개방 코딩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념을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더 추상적 차원에서 범주화 하였고 원 자료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축 코딩 과정에서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강강술래의 치유 경험과정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에 바탕한 다양한 가설적 관계진술을 통해 강강술래 체험과정의 과정분석과 참여자의 행동 유형, 상황모형을 도출함으로써 강강술래 치유 경험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각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하여 녹음한 내용을 전사해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에 밑줄을 긋는 행렬분석(line-by-line analysis)을 이용하여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범주로 묶어 속성을 찾아내었다.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서

4) 범주(category): 각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도출된 비슷한 특질을 가진 내용들을 대표하는 단위로서 개념들은 상위 질서에 의해 범주라 불리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아래 묶여진다.

5) 속성(property)과 차원(dimension): 속성은 하나의 범주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과 특질을 의미하며, 차원은 연속성을 갖는 속성들의 위치로서 주어지는 일련의 조건하에 있는 현상의 특수한 속성들을 보여준다.

범주화 시 개념들의 쓰임새(use)와 상황(context)을 고려하였다. 속성과 범주에 대한 발견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원 자료와 현장 노트 및 메모를 참고하여 자료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고, 정서/감각/사고/행동 차원에서 상호작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개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여러 개의 하위 범주를 보다 큰 추상적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주요 개념 도출은 주연구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1인, 임상심리학자 1인 그리고 본 연구의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서 수정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하여 184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개념들은 3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고 그리고 하위 범주들은 1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개념과 범주 목록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강강술래 경험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심리 역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 전 심리 상태, 체험과정 그리고 체험 후의 심리변화로 구분하였고,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표 3 참조). 실제 코딩과정에서는 원 자료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 과정과 하위 범주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해가는 축 코딩 과정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지그재그식으로 긴밀하게 오고가며 진행되었다.

축코딩(axial coding)

근거이론 개발 과정에서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범주간의 관계를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단계로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드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축 코딩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 기술은 강강술래 경험과정과 관련된 실제적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던 개념과 범주를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강술래 경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14개의 상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근거 이론적 틀인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로 재배치하였다.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단절된 관계’, ‘사는 재미상실’, ‘자기 표현의 요구’,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추구’로, 맥락적 조건은 ‘망설임’, ‘방어적임’, ‘호감’으로, 중재적 조건은 ‘예술적 특성요인’, ‘집단역동 요인’으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억압 추구’, ‘소극적 표출 추구’, ‘적극적 표출 추구’로 그리고 결과로는 ‘씻김(개인적, 집단적)’, ‘관계 회복(자신, 이웃, 자연)’, ‘치유(통찰 및 의미 발견, 새로운 자기발견)’로 발견되었다. 코딩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강술래 경험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로서 ‘왜 그 현상이 발생 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강강술래 참여자들의 단절된 관계, 어려운 현실, 사는 재미상실과 같은 내,

표 3. 강강술래 경험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 범주, 범주 그리고 구성요소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체험 전 심리상태	역압적 역동	단절된 관계	텔레비전 닥, 지나친 경쟁구조, 돈이 최고, 함께 나누는 문화 부재, 고립감
		어려운 현실	남편노릇 부모노릇에 지침, 지겨운 일상사, 경제적 압박감, 나를 돌볼 여유가 없음
	창조적 역동	사는 재미상실	남의 눈이 무서움, 율화통, 답답함, 한이 쌓임, 성적 억압, 줄길 줄을 모름
		자기표현의 요구	체면을 탈피 하고 싶음, 자기 벽을 허물고 싶음, 본능적 섞임의 기능, 내면의 흥이 충만함
체험 계기	체험 계기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 추구	근질긴 생명력, 나를 찾고 싶음, 분향에 대한 애착, 자주적인 삶 회구, 함께 풀어내고 싶음
		생활에서 체험	세시 풍속에 참여함, 액막이 동제, 고뇌의 위로, 화합과 격려, 하나 됨 추구, 집단의 분위기 조성, 집단의식의 정점
	현장에서 체험되는 유형	간접 체험	그림으로 체험, TV나 교과서에서 배움, 예술품으로 체험
		정형화된 강강술래	보여 주기위한 춤, 무대와 청중이 분리됨, 어려워서 아무나 하기 힘들, 일정한 틀이 있음, 흥을 가둠
체험 호감도	소극적 참여	역동적인 강강술래	전체가 함께 노는 춤, 들고 남이 자유함, 시간제한이 없음, 상황에 맞는 놀이형식, 흥이 고양됨
		방설임	소심해서 주저함, 다른 사람 눈치를 봄, 낯설고 어색한 몸짓, 이끄는 도움이 필요함
	적극적 참여	방어적임	손 한번 잡는다고 녹아내릴까?, 손잡는 것 따로 본심 따로, 생각이 많음, 자기개방이 힘들
		호감	개방적임, 몸의 움직임을 선호함, 일단 행동하고 봄, 스스로 풀려고 노력함
강강술래 특성요인	예술적 특성 요인	원형적인 춤	동작의 단순성, 달과 꽃을 모의한 춤사위, 이상과 현실의 합치(조화)
		직접성	진실성,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것(형상과 의미성의 일치), 이어춤, 빠른 친근감
		몸에 익숙한 리듬	지루하지 않음, 움직임을 돕는 가락, 즉흥성, 회노에락이 담긴 가락
		주술성	처음에는 구슬프게 점점 신나게, 우리 이야기를 담은 가사, 공감, 내면을 건드리는 반복적인 리듬
	창조적 놀이	생활이 놀이	생활을 모방함, 어린 시절의 놀이 재연, 놀이의 융통성, 바래를 담을 수 있음
		사회성	장난과 재미, 배려와 협동, 창조성이 고양됨
		상징적인 변형무	원형의 춤, 무의식과 소통, 한과 기원을 담은 달 춤, 음기의 발산(달-밤-바다-여성), 이성 교제의 장
		평등성	일체감, 평등, 피아의 공존

표 3. 강강술래 경험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 범주, 범주 그리고 구성요소 (계속)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강강술래 특성요인	집단 역동 요인	열린 흐름	최소 틀이 주는 안정감, 시간의 융통성, 난장, 자유스러운 표현
		집단원의 공감과 격려	꼭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를 반영하는 추임새와 움직임, 안정적 인 수용
		역동적 상황	집단원간 강한 소통, 우리의식 확인, 통계적 예상을 뛰어넘음, 저항의 힘
		역동적 안내자	자신의 흥을 존중함,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공감, 성취감을 나눔
집단신명 들어가기 (초기)		참여를 주저함	수동성, 남들의 눈을 의식함, 역할 부담감
		긴장의 이완	서툰 몸짓, 욱신욱신 땀, 따스함, 자연스럽게 따라함, 몸에 흥이 붙기 시작함
		한과 흥이 일어남	설FP임, 부담감, 재미있음, 순수해짐, 깊은 한이 건드려짐, 점차 흥이 일어남
참여자 특성요인	집단신명 표출하기 (중기)	신체 에너지 확장	온몸에서 힘이남, 방방 땀, 심장이 땀, 몸이 달아오름, 땀이 비 오듯 함, 가 락에 몸이 저절로 실림
		몰입과 상호작용 확장	서로에게 코드가 맞춰짐, 내 설움 좀 들어보소, 흥의 전이가 일어남
		평소와 다른 행동	손을 놓고 난장을 벌림, 자기 흥에 겨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름, 걸쌈이 남, 창조적 행동, 체력이 바닥나서 헉헉-
		한(恨)풀이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함, 아픔이 내려지는 느낌, 일체감, 총체적 절정감
집단신명 정리하기 (말기)		회상/바램	몸이 기억하는 과거 회상, 어린 시절 감정을 떠올림, 역할 바꾸기, 주인공 이 되고 싶음, 감정이입, 의식이 확장됨
		건강한 몸	몸이 피곤해도 아프지 않음, 억눌린 몸의 해방감, 짙은 몸, 환한 미소
		시원함/만족감	벽이 허물어진 느낌, 후련함, 정겨움, 뿌듯함, 행복감, 편안함, 아쉬움, 담담함
씻김		긍정적 사고	삶에의 통찰과 긍정, 새털처럼 가벼운 나, 맑은 상념이 올라옴
		개인적 씻김	쌓였던 것이 녹아내림, 한과 신명이 동시에 풀어짐, 삶의 힘이 솟음, 감성 이 회복됨, 긍정적 희망
결과	관계 회복	집단적 씻김	다른 사람과 쌓인 감정 해소, 불편한 관계가 풀림, 사회적 욕심을 비우는 계기, 서로 다름을 수용, 우리 인생이 강강술래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자기표현이 좋아짐, 자기 그림자의 수용, 변화의 중심은 나, 자존감 회복, 내가 사는 이곳이 중심
		집단적 유대감 회복	공동체 의식, 좌우의갈등에서도 마을을 보호한 강강술래, 피아공존의 진리 이해
		생태적학 사고	상생, 물에도 길이 있어요, 숲과 사람과 5월 영령들이 강강술래
치유		통찰과 의미 발견	마음을 비우는 계기가 됨, 사람은 관계적 존재임, 자기 아픔을 살피고 대 처하게 됨, 새로운 시. 공간
		새로운 자기발견	영성발견, 자기다움 회복, 우주적 본성이어서 치유적임, 조화와 균형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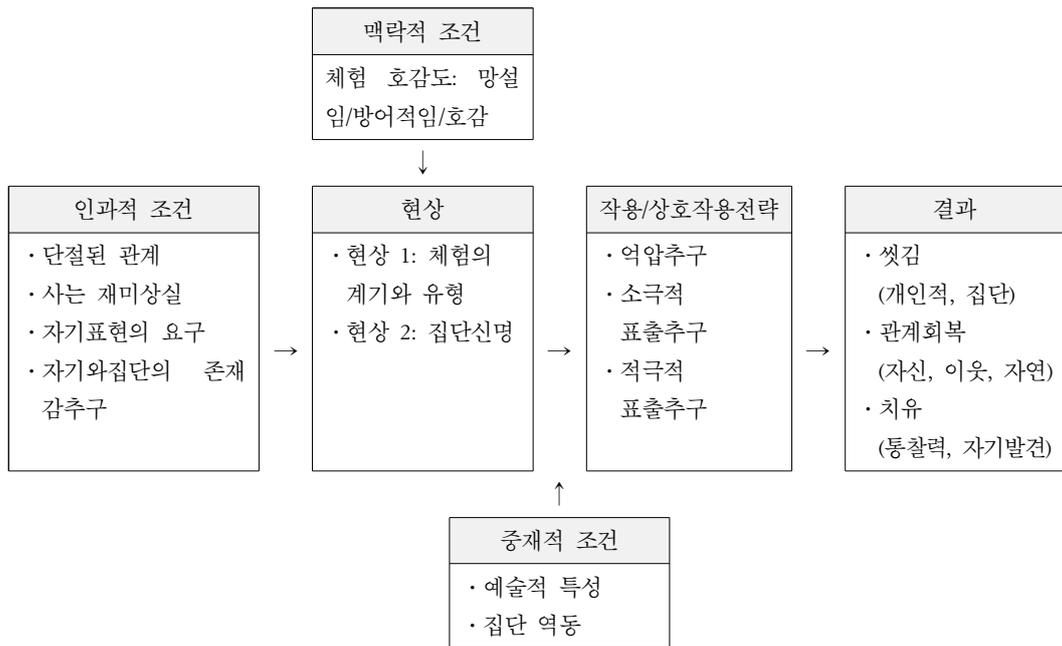


그림 2.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경험 과정에 대한 모형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내면의 억압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사례 1-16), 자기표현의 요구(사례 6, 7, 9, 10, 11, 12, 13)와 자기와 자기가 소속한 집단과 지역의 존재감 추구(사례 1, 2, 3, 4, 5, 6, 9) 그리고 내면의 본원적 창조적 열정(사례 1, 2, 3, 5, 6, 10, 14, 15, 16)이 강강술래 체험의 과정과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이 개발되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현상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장 즉, 구체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조건들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왜 현상이 지속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강강술래 체험에 있어 참여자마다 강강술래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에 망설임이 많은 참여자들(사례 7, 8, 10, 12), 집단체험을 회피하는 참여자들(사례 11, 13) 그리고 강강술래 체험을 신선하다 느끼며 호감을 갖는 참여자들이 있었다(사례 1, 2, 3, 4, 5, 6, 9, 14, 15, 16). 강강술래 경험에서 여러 가지 맥락적 조건의 상호 작용은 ‘집단 신명’이라는 현상 2가 일어나는 방식 및 현상 2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절정을 풀어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현상

현상(phenomenon)은 ‘여기서 무엇이 작용/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적인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현상 1

강강술래 참여자들이 강강술래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와 현장에서 체험되는 강강술래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강강술래를 생활에서 직접 체험(세시풍속, 마을 축제, 교사 대회 등)하거나 간접 체험(공연 감상, 텔레비전, 판화 등)을 통해 일상적 혹은 비일상적 문화로서 체험한다(사례 1-16). 현장에서 체험되는 강강술래의 유형에는 정형화된 강강술래와 역동적 강강술래가 있다. 정형화된 강강술래(사례 4, 14, 15, 16)는 무대와 청중이 분리 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가사 및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안내자의 지시적 개입이 강하다. 반면 역동적 강강술래(사례 1, 2, 3, 5, 6, 7, 8, 9, 10)는 정형화된 틀을 탈피해서 자유스럽게 함께 어울리고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현장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된다. 안내자는 전체 마당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놀이판의 상황과 참여자들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돕는다(사례 1, 2, 3, 5, 6).

현상 2

강강술래 체험 과정의 일련의 전략들이 ‘집단 신명’의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전략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신명’을 중심현상(현상 2)으로 보았다.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중심현상으로서 ‘집단 신명’은 이것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 집단 신명을 표출하는 단계 그리고 집단 신명 정리단계의 흐름을 따라가며 심리역동은 변화하였다. 강강술래 마당에 들면 손에 손을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순한 틀이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집단의 움직임에 동화되도록 이끈다. 점차 신체의 긴장이 이완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한과 흥이 고양된다.

단순한 동작 및 가락과 소리의 역동적이고 흥겨운 반복은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확장시킨다(사례 1-16). 온 몸에서 힘이 나고 화기가 돌고 어느새 신체 움직임이 가락을 타게 된다(사례 1, 2, 6, 10, 14, 15, 16). 집단원은 서로 춤으로 상호작용하며 공감과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창조적 행동이 분출하며 자신의 끼를 마음껏 분출하게 된다(사례 1, 2, 3, 5, 9).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사고는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의 관계와 감정을 현재에 가져와서 재 경험한다(사례 1, 2, 3, 4, 6, 10). 집단속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존재로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러한 역할의식이 확장된다(사례 1, 2, 3, 5, 8). 놀이공간에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내면의 억압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풀려간다. 이러한 ‘집단 신명’상태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적 절정감이 행동으로 분출되는데, 이러한 강렬한 정동 상태를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걸쌈을 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사례 9, 14, 15, 16). 또 다른 참여자는 “총체적 오르가즘... 개인의 어떤 성취에서 오는 어떤 개인 차원에서 느끼는 절정과 집단이 어우러졌을 때 같이 몰아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절정감...(사례 5)”이라 하면서 총체적 절정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강강술래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애요. 물론 그런 ‘나’라는 존재는 없드시 ‘남’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사례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단 신명’은 개인적 성취나 만족감에서 오는 정서경험과는 다르게 혼자서는 살아 낼 수 없는,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에의 절박한 요구를 가진 집단공동체가 가지는 정서경험이었다. 또한 집단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은 몸이 피곤해도 피곤

하다 느끼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무거운 것이 내려진 시원함과 만족감 그리고 긍정적 사고가 생겨난다. 강강술래 과정의 중심현상인 ‘집단 신명’은 중재적 영향요소(예술성, 집단성)의 영향을 받아 더 강하게 분출되며 이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된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이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이다.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영역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집단 신명’의 전개과정에서 취해지는 전략적 조건이 강강술래의 예술적 요인과 집단 역동 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촉진 또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를 중재적 조건으로 보았다. 강강술래 과정의 심리역동 변인으로서 예술적 특성 요인에는 단순하고 쉽고 역동적인 춤사위, 몸의 리듬, 노동의 리듬, 생활의 리듬을 반영한 흥겨운 가락과 소리, 생활을 반영한 창조적 놀이 그리고 원형(circle)의 변형무로서 상징적으로 풀어지는 구조적 특성 등이 있었다. 강강술래 과정의 집단역동 요인에는 참여자들이 현장 마당에서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치며 생생하게 체험되는 집단 춤으로써 신분의 높낮이가 없이 함께 어울리며 자유스런 난장이 가능한 열린 흐름(사례 1, 2, 3, 5, 8, 10), “자기 표현하고 솔직하게 상대가 자기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입시키고 이러면서 30명이 뚝뚝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사례 10)’처럼 집단원 간의 공감과 격려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강한 자아의 문지기를 내려놓고 감정 고양과 강력한 행동의 분출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때 안내자나 상황이 개인과 집단의 한이나 삶의 고달픔을 토로하도록 고무하거나 집단원의 공감과 격려가 시청각적 자극(흥분된 얼굴, 체취, 터져 나오는 소리, 열기 등)에 의해 걱정이 전달되면 그대로 생사를 넘나들면서 집단의 목적 추구를 위해 장엄한 저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사례 1, 2, 3, 10). 이러한 집단 역동의 연출가가 역동적인 참여자나 안내자이다(사례 1, 2, 3, 4). 강강술래 역동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내부에 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강강술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사례 1, 2, 3, 5). 본 연구에서는 ‘집단 신명’의 전개과정에서 취해지는 전략적 조건이 강강술래의 예술적 요인과 집단 역동 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촉진 또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를 중재적 조건으로 보았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interaction)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 ‘집단 신명’ 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난다.

강강술래 체험 현상을 다루는 참여자의 상호작용 전략은 억제추구, 소극적 표출 추구, 적극적 표출 추구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집단 신명을 억제하는 참여자(사례 12, 13)는 자기 방어가 심하거나 회피적이며 체면이 먼저 생각되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주저하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한다. 소극적 표출을 추구하는 참여자들(사례 7, 8, 9, 10, 11)은 내면의 흥은 느끼는데 표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집단의 역동에 따라 자기 마음을 개방하

는 정도가 급속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난장의 분위기, 안전한 수용감이 있으면 충분한 몰입상태도 가능하며 자기와 이웃과의 소통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적극적으로 집단 신명을 표출하는 참여자(사례 1, 2, 3, 4, 5, 6, 14, 15, 16)들은 활동적이고 스스로가 집단 안에서 핵심적인 세포로 움직이며 자기감정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분출하며 자기 성찰과 통찰력도 탁월하다. 모두 맥락적 조건에 주어진 현상인 ‘집단 신명’을 위한 참여자의 작용/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강강술래 경험과정의 중심 현상인 ‘집단 신명’에 억제추구, 소극적 표출 추구, 적극적 표출 추구의 전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결과이다.

강강술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가져다준 의미 있는 결과는 씻김, 관계회복, 치유로 나타났다.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강강술래 경험을 통해 씻김을 경험한다. “강강술래는 집단의 녹이름 통해서 개인의 굳어진 것들을 풀어내게 하는...(사례 1)”의 표현처럼 강강술래 경험의 장은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억압으로 인한 불안과 내면의 자기표현의 욕구들이 해소되는 자신의 내적 씻김(사례1, 2, 3, 4, 5, 6, 7, 8, 9, 10, 14, 15, 16)과 집단적 씻김(사례 3, 5, 6, 9, 10, 14, 15, 16)의 장이었다. 참여자들은 강강술래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 및 자연과 관계회복을 경험했다(사례1, 2, 3, 5, 8, 9, 14, 15, 16).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만족스러웠는데 집단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성과 집단의 존재감이 확인되면서 자기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직장가 가정의 살맛나는 공간으로 느껴진다(사례 1, 2, 3, 5, 6, 7, 8, 9, 14, 15, 16). 강강술래가 ‘하나로 이어짐’의 이미지로 강하게 다가오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과 자연과 화해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멧힌 마음, 굳은 몸, 닫힌 사고가 걷히면서 새로운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였다(사례 1, 3, 5, 7, 9). ‘나를 비껴주는 니가 없으면 삶이 없다(사례 3)’는 즉,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지 개별적 존재가 아니며 모든 것은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에서 어떤 질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찰을 통해 삶에의 융통성과 지혜가 확장되었다. 원형의 변형무로서 강강술래의 상징성이 새롭게 자기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었다(사례 1, 3, 5, 6, 7). 강강술래 경험은 한국의 전라도 땅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끌렸던,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금방 터질듯한 마땅한 것, 터지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절실한 그 무엇이었기에 자기중심, 자기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치유적인 경험이 었다(사례 1, 2, 4, 5, 6, 9, 14, 15, 16). 강강술래 경험은 참여자들의 불안한 심리역동과 집단 무의식적 흥이 강강술래 체험과정에서 표출되고 행동화됨으로써 심리역동 안정, 단력적인 사회적응 그리고 새로운 자기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은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된 중심 현상인 핵심범주를 밝히고 그것을 다른 범주

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0). 먼저, 강강술래 경험과정의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축 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핵심범주에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켜 서술적 문장으로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이론 개발을 위해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사이의 가설적 상관관계를 정형화하고 관계진술문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자료와 비교하며 경험과정의 행동 패턴을 유형화하였다. 도출된 유형과 관련하여 연구자 나름의 전략적 제안을 첨가하였다. 이후의 과정분석과 상황모형 도출은 가설진술을 통합해서 실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이론을 도출하였다.

핵심범주(core category)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 치유의 과정”

근거이론에서 핵심범주는 중심 현상 또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최귀순, 2005). 여러 조건에 관계없이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되며 다양화되는 변인으로서 1개 또는 1개 이상 도출이 가능하고 동명사로 표현된다. ‘이 자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 연구의 초점은 무엇인가?’, ‘정보 제공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정보 제공자가 처한 문제를 돕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이용하여 핵심범주를 찾았다(Glaser & Strauss, 1967).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강강술래 경험과정을 분석한 결과, 강강술래 경험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 범주는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닫힌 심신

이 강강술래 체험과정에서 예술과 집단의 역동이 매개가 되어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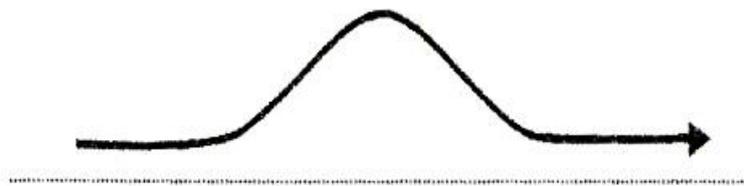
이야기 윤곽(Story Line) 전개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 강강술래의 핵심범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강강술래 경험의 총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사례를 해체하여 우연한 일과 사건, 대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범주간의 간격을 메우고 분석적인 작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윤곽 전개는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보다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기록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된 각 범주들 즉,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서술적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강강술래 체험 이전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역사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로부터 심한 단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지루한 일상, 사는 재미 상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 추구 그리고 인간의 본원적인 생명력과 성인기의 자기다움에 대한 갈망 등으로 체험 전 심리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개인 내 억압적, 창조적 역동을 의식 차원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고 스스로 치유적인 삶으로 나아가고픈 요구가 높다(인과적 조건). 이러한 요구 속에서 심리적 요구를 해소할 체험을 갈망하고, 강강술래라는 집단 예술적 체험을 통해 자기를 풀

어내고자 하는 요구와 자기가 속한 집단과 지역사회 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요구를 담아 스스로 그러한 체험의 계기를 만들거나 계기가 주어지면 기꺼이 참여한다(현상 1). 처음 강강술래를 체험하게 된 참여자들의 반응태도는 다양하다. 강강술래 체험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임이 많은 참여자들은 자기 개방을 위해 환경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방어적인 참여자는 자신의 정신적 경험에 대해 쉽게 열지 않으며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참여자들은 강강술래 체험에 호감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방어가 적고 관심과 신선함이 클수록 새롭게 자기 행동과 표현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기 치유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맥락적 조건). 강강술래가 시작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내면의 한과 흥도 건드려진다. 점차 강강술래의 특성 요인은 상황을 고조시키고 즐거운 감정을 증폭, 극대화하게 된다. 방방 뿔, 고함, 덩석덩석 다른 사람 손을 잡는 등의 행위는 서로를 고양시키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행동에 몰입하도록 돕고 강력한 신명 표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식적, 영적인 요소가 통

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집단 신명’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의 멧힌 에너지를 풀어낸다(현상 2). 강강술래를 통한 ‘집단 신명’경험은 강강술래의 예술적 특성과 집단 역동 요인이라는 조건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직접 손에 손을 잡음으로서 빠른 친근감을 유도하는 역동적 춤사위, 몸의 움직임을 돕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의식을 안내하는 흥겹고 주술적인 가락, 배려와 협동, 창조성 고양을 돕는 재미있는 놀이 그리고 원형의 변형 무로서 무의식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평등감으로 피아공존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원형구조가 강강술래의 예술적 특성요인이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 난장의 분위기,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소리로 주고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공감의 확장, ‘우리의식’의 확인 속에서 비약적인 힘으로 분출될 수 있는 집단역동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동을 존중하는 안내자 등이 의미 있는 상황이 된다(중재적 조건). 이러한 상황은 참여자들의 감정과 행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평상시와 다른 자신의 변화된 행동표출방식에 대해 억제추구, 소극적 표출 추구, 적극적 표출 추구하고 같이 점점 더 강도 높은 통제력을 구사하게도 한다(작용/상호작용 전략). 강강술래 체



실리역동→ 체험→ 호감 → 집단적 신명(결심을 냄)→적극적 표출 추구→ 성장과 치유
 억압상태 → 억압 드러내기 → 억압해소 → 성장과 치유
 내면의 흥 발견 → 내면의 흥 드러내기 → 내면의 흥 표출 → 성장과 치유

그림 3.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경험 ‘과정’ 곡선

험 이후의 심리역동 변화는 앞서 설명한 여러 조건, 상황, 전략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자기 치유를 경험한다(결과). 치유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통찰을 통해 확인된다. 섬세하게 감각이 회복되고 새로운 만남 방식의 행동화를 통해 씻김과 관계회복을 경험한다. 나아가 삶에의 긍정적 활력이 생기고 성인세대의 자기다움을 찾아가면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은 강강술래 경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체험 이후에 연구자와 면담과정에서 해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 찾기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경험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역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과정적 흐름을 도출하였다(그림 3 참조).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의 유형 분석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에서 고려한 가설적 관계를 근거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 하였다. 그 결과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에는 ‘역동 회피형’, ‘예술과 집단 호소형’, ‘역동적 자기 실현형’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역동 회피형

‘망설임이 크고 방어가 강하며 호감이 적고 신체 움직임을 선호하지 않으며 예술적 영향력이 약하고 집단 역동이 적은 경우의 ‘예술

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자기씻김이나 긍정적 희망이 적으며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을 약하게 경험하나 관계변화의 요구는 있기에 계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느끼며 내면의 변화를 지향한다’.

예술과 집단호소형

‘망설임이 크고 방어가 약하며 호감이 크고 신체 움직임을 선호하며 예술적 영향력이 강하고 집단역동이 큰 경우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씻김을 통해 긍정적 희망을 얻고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을 회복하며 통찰력이 늘고 내면의 창조성이 발양되어 심리역동이 크게 안정되며 내면의 치유를 경험한다’.

역동적 자기실현형

‘망설임이 없고 방어가 적으며 호감이 크고 신체적 움직임을 강하게 선호하며 예술적 영향력이 강하고 집단 역동이 큰 경우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치유의 과정’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씻김과 긍정적 희망을 얻고 자기와 집단의 존재감을 회복하며 통찰력이 늘고 내면의 창조성이 발양되고 생태적 사고를 통해 내면의 치유를 강하게 경험하며 이후에도 강강술래적인 사고와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예술과 집단의 역동으로 풀어나가는 자기 치유과정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전형적인 반응과 행동패턴이자 강강술래 경험의 시간적 흐름(초기-중기-말기)에 따른 심리 역동의 질적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처음에는 역동 회피적이고, 점차 예술과 집단 역동의 도움을 받아 역동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실현이 가능해지는 단계적 흐름과 연관이 있었다.

논 의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경험과정’ 논의

강강술래 경험은 일련의 강강술래 체험 과정의 산물이다. 강강술래는 사회적, 집단적, 개인적 필요와 요구의 산물로서 경험자들의 삶의 토대와 관련하여 역사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공동체 합의의 상징적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강강술래 체험에 드는 동기가 자 집단 신명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논의에서는 강강술래가 강강술래다울 수 있는 특성을 경험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개념과 범주를 중심에 두고 연구 목적, 경험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을 재조명해본다.

강강술래 참여자들은 ‘마법의 구슬’(사례 3) 처럼 한 사람이 백사람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며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춤이 강강술래이며(사례 3, 10), 열린 사람 열린마당 열린 세상을 향해 다양한 의미성을 가진 춤으로 강강술래를 경험하고 있다(사례 1, 2, 3, 5, 6, 7, 8, 9, 12). 강강술래가 가지는 다양한 영향 요인은 참여자로 하여금 개인과 집단, 현실과 상상,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의 경계를 좁혀가며 좋은 놀이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자기표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두려움 없이 굳건한 문지기인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속의 아이(child-within)(이무석,

2003, 87-311)를 이끌어내어 신나게 놀며 자기 내면의 역동을 안정시켜간다.

강강술래 체험 과정은 일상의 소통방식이나 다른 예술 문화와 비교하여 만남의 방식이 다르다. 일상의 반복적 피상적인 만남과 컴퓨터와 같은 가상적 공간에서의 간접적인 만남방식에서 살아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관계체험의 패턴이 변한다. 또한 기존의 언어 중심의 소통방식을 비언어적으로 확장한다. 언어라는 것은 이미 자기 통찰적인 과정에서 걸러진 의식적 문화의 산물인 반면, 강강술래의 직접적, 비언어적 소통방식은 무의식과 관련되어 더 강렬한 경험을 가져 올 수 있다. 억압으로 인해 긴장된 심리 에너지는 끊임없이 의식화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참여자들이 자기 내면의 역동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긴장된 에너지가 풀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강술래는 현대인의 정신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완성해 갈수 있도록 돕는 예술치유문화로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Jung의 4가지 정신의 기능적 측면인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감각(sensation) 그리고 직관(intuition) 차원에서 제고 해 보면 누구나 정신의 4가지 기능 중 하나의 주 기능(우월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 기능의 대극에 열등기능이 존재한다. 열등기능의 의식화는 자기실현과 관련이 있고 열등기능의 의식화를 위해서는 주 기능의 일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이부영, 1997). 만약 현대인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고가 우월하고 감정이 열등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강술래와 같은 감각과 직관중심의 집단예술 체험은 열등기능의 활성화를 돕는 보조기능으로 작용됨으로써 현대인의 조화로운 성격성장을 도울 수 있다.

강강술래의 직접성, 집단성, 상징성, 평등성, 예술성은 다른 여타의 예술문화(농악, 댄스 스포츠 등)와 다르게 참여자의 심리역동의 질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별히 원무(圓舞)로서 강강술래의 특성은 참여자로 하여금 전체적 존재로서 자기지향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Von Franz (이부영 역, 2003, 16-25)는 圓을 자기(Self)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원은 인간과 자연 전체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정신의 全一性和 삶의 궁극적인 전체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강강술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집단 신명’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강강술래 경험의 주요정서를 ‘신명’이라는 언어로 자기 경험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남, 즐거움, 행복함, 시원함, 뿌듯함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그 정서적 토대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강강술래 경험은 참여자들이 소속해있는 전라도 지역의 역사성과 토속성이 반영된 집단 예술적 경험으로서 정동체험의 상황과 질적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남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집단 신명’ 현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 기쁨과 슬픔, 화해와 분노, 너와 나 그리고 삶과 죽음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며, 이러한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서 대극적인 것의 변증법적 합일의 지점에서 터져 나오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절정적 체험이 ‘집단 신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경험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맥락을 가지고 질적으로 다르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 한(恨)의 정서 경험과 표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은 한과 관련하여 가슴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며, 열이 나는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호소하며 주로 한을 풀지 않고 억압하는데 특히 환자집단에서 억압(31%)을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오진미, 2001).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국인은 자기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특별히 진도 사람들은 자신의 심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냇두리와 같은 흥타령이나 살풀이 춤, 농악, 서예 등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깊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혼자 있으면 쑥스러워하고 잘 놀지 못하지만 집단 난장 속에서는 함께 어우러지고 깊이 있게 자신에게 몰입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강강술래와 같은 신체 활동이 중심이 된 집단적 난장은 한국인의 충분한 정서 경험과 표출을 도울 수 있다. 강강술래의 변용을 통한 예술적 접근은 보여주기 위한 예술적인 춤이 아닌 흥에 겨워 만족을 위한 춤이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의식의 춤이고, 행동이나 말을 나타내는 표현력의 춤이며, 자신과 이웃, 자연과 막힌 벽을 허무는 소통의 춤으로서 한국인의 맺힌 한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강술래의 예술 치유적인 경험은 경험자들의 심리 억압적 문제와 부정적 정서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인간 심성의 긍정적 창조적 본성에 초점을 두고 대단히 역설적으로 풀어진다. 직접 아픈 지점으로 내달리지 않고 예 돌아간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으로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심상인 집단적 무의식(集團的 無義識) (이부영, 1997, 67-303)이 강강술래라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서 강강술래의 경험이 주는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

강강술래가 상담과 치유와 관련하여 현대 심리학의 문제 중심의 치료적 접근에서 보다 새로운 인간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풀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강강술래 자체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강강술래 경험의 의미는 중층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자에게 있어 강강술래 경험에 대한 의미성은 단순히 감정의 씻김만을 경험한 것에서부터 영적인 치유까지 그들의 특성에 따라 경험의 깊이와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이후 참여자마다 강강술래 또는 이와 비슷한 집단 예술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나아가면서 강강술래적인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과정도 이와 맥을 같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강강술래 경험과정은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영혼의 복을 두드려 심장을 깨우고, 춤을 추며 억압된 상처를 쓰다듬고 그렇게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었다.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 억압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무의식에서 통합적인 치유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상대적 자리와 절대적 자리를 함께 넘나드는 경험이었다.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강강술래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몇몇 문화 활동이나 연구자 중심의 제 3자적 연구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당사자 중심으로 강강술래 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체계화하여 강강술래 치유 경험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강술래 경험과정에서 환과 신명 정서요인의 활성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정서 인식과 표현에 서툰 한국인에게

정서 표현을 도울 수 있는 치유적인 접근으로서 강강술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강강술래라는 민속놀이가 집단,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적인 변용을 통해 새롭게 소통을 증진시키는 관계중심의 심리건강 문화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단절된 관계로부터 자기 억압, 사회성, 대인관계,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그리고 자기내면의 표출과 자기실현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고안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한점으로는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참여자의 정보제공 범주도 한계가 있어 풍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강강술래는 다른 일상적 경험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날(명절, 보름날, 지역사회 축제, 운동회, 동호인 모임 등)에 행해지는 비일상적인 문화 경험이어서 강강술래 체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풍부하게 언어로 전달해줄 내담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심층 면담 참여자 중에 평소에 연구자와 신뢰관계가 깊고 인간관과 삶의 가치관 등에서 연구자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도 있었다. 주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긴밀한 관계가 깊이 있는 정보획득에 도움이 되었지만, 부정적 사례와 같은 다양한 정보수집에는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둘째, 자료와 연구자가 만나는 지점의 문제로서 연구자의 판단중지의 과제이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의도적 표집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심이 반영되었고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주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기에

연구자의 판단개입을 제한, 검증할 장치가 미흡했다. 셋째, 본 연구자는 녹음자료와 기타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구 성과를 내오는 과정에서 문헌고찰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결과 연구결과의 의의 도출 및 논의과정이 긴밀하고 폭넓게 되지 않았다. 넷째, 연구 성과물을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연구 방법의 다원화와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예술적 경험의 의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있어 언어적 기술 이외에 사진, 그림, 동영상 그리고 단어연상과제 등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성과를 평면적인 지면에 기존의 양적 연구물의 기술에 용이한 패턴으로 표현하다보니 연구 결과의 생생한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글의 전개에 있어 주부와 술부의 호응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연구자의 말과 참여자의 말의 경계가 애매하게 드러나는 등 연구결과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글쓰기가 미흡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새로운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인 강강술래 경험 과정에 관한 이론을 응용한 예방적 임상적 차원에서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별히 이주 여성과 새터민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 한 부모,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역동과 관계 패턴들이 생기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호소통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강강술래 치유경험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시대적 과제일 수 있다. 둘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전통 민속 문화나 현대 문화와 접목하여 통합적 집단 예술치유문화의 전형으로서 강강술래를 되살려갈 수 있는 창조적 관점

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강강술래를 농악, 탈춤, 줄다리기, 민요, 설화, 동요 그리고 아동과 성인들의 여가 문화(각종 놀이, 인터넷 게임, 라틴댄스, 건강 체조 등)와 접목하여 치유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필요가 있다. 농경사회와는 다른 형태이겠지만 세시풍속, 각종 통과의례, 지역사회 축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 건강문화로 되살려 강강술래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식의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문화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유관학문의 교류를 확대하여 학문적, 인적, 물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 성과물을 공동으로 축적해감으로써 심리치유문화로서 강강술래적용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셋째,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경험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참여자를 정교화하고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형의 상징성과 강강술래’, ‘강강술래 움직임의 심리적 특성고찰’, ‘분석심리학과 강강술래’, ‘세계의 원무와 강강술래의 치유성 비교연구’, ‘강강술래 경험을 활용한 한국적 집단 치유모델 개발-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 장애우 대상’ 등으로 연구주제를 나누어 심층적으로 고찰 한다면 강강술래 경험에 관해 새롭고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현장에서 돌아가서 자료를 검증해감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연구주제 설정 시 강강술래 경험과 관련하여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나 효과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온 정보는 의외였다. 그들은 강강술래를 개인과 집단의 삶의 정체성과 역사성의 요구가 자긍심의 형태로 풀어지는 문화로, 어떤

심리적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풀어내려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창조적 자기 실현의 요구가 담긴 문화로서 더욱 깊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식의 연구 태도는 연구자가 보고자하는 쪽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주제를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융통성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현장 참여자들의 삶의 진술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면담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그림, 동영상, 행위 예술 등 다양한 표현매체를 통해 연구 성과물의 글쓰기 방식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나영 (2004). 무용/ 동작치료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인의 질적 행동유형에 관한 분석. 한국 특수체육학회지, 2(2), 13-24.
- 김미숙 (2007). 진도 셋김굿과정의 예술 치료 적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136-137
- 김미숙, 오수성 (2007).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본 진도 여성의 삶과 예술. 남도민속연구, 15, 7-34.
- 김소선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69-78.
- 김진숙 (2005).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KEAPA Press.
- 노환홍 (2007). 예술 교육의 개방성과 치료. 독어교육, 38, 385-407
- 양종승 (2002). 민속무용과 예술. 비교민속학, 23, 83-97.
- 오진미 (2001). 곳의 治療的 過程을 適用한 相談 模型의 具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모영 (2004). 예술심리학-비판적 고찰과 전망.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3(2), 65-86
- 이무석 (2003).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 이부영 (1970). 사령의 무속적 치료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 연구. 최근의학: 13, 79-94
- 이부영 (1997). 재생의 상징적 의미. 심성연구, 12(2), 89-182.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일조각.
- 이부영 역 (2003). 人間과 無意識의 象徴. 집문당.
- 이운선 (2004). 강강술래의 디지털 콘텐츠 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후경 (2000). 집단과 예술. 임상예술학회지: 11, 40-49.
- 최귀순 (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 간호학회지: 14(1), 86.
- 최상진 (2007). 마음속의 몸, 몸속의 마음.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pp.122-123.
- 한규석 (2002).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현황과 과제.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1(2), 67-95.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 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7.
- 한민, 한성열 (2007). 신명에 대한 문화심리학

- 적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6(1), 83-103.
- Fetterman, J. (1989). *Ethnography*. London: Sage Pub.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Publishing.
- Pedersen, B. P, & Ivey, A. E. (1993). *Culture-centered counseling and interviewing skills: A practical guide*. Westport, CT: Praeger.
- Strauss, L. A, & Corbin, J. (1990). 근거이론의 이해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역(1996). 서울: 한울출판.
- Strauss, L.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Publications.
- Wallace, E. (1987). *Healing Through the Visual Arts. Approaches to Art Therapy*. Judith Rubin, Brunner/Mazel Inc.
- 1 차원고접수 : 2008. 9. 30.
수정원고접수 : 2008. 11. 17.
최종게재결정 : 2008. 11. 28.

A Qualitative Study for a Model of Healing Processes of Experiencing Kangkangsulrai

MiSook Kim

SooSung Oh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took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 Corbin, 1990) in order to develop a model of healing processes of experiencing *Kangkangsulrai*, a folk group dancing practiced widely in rural area. We interviewed 16 adults residing in rural area who often practiced the group dancing. Following the analytic frames of the grounded theory, we identified 184 concepts which were grouped into 36 subcategories and 14 superordinate categories. The causal conditions for the healing experiences of *Kangkangsulrai* were the suppressed feeling and/or the severed experiences from relationship and living in the community.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turn the negative feelings into creative psychodynamics of the group *shinmyung* by engaging in the dancing activities collectively. In this process, the artistic properties of the dancing and group dynamics played as the mediating role. The activity of rotating circles repetitively with holding hands on both sides appears to booster the oneness feeling of the group. This feeling in turn leads to enhance ecstatic experience psychodynamically and to the healing and being-cleansed experience. The process analysis also identified three types of participants; the avoiding dynamics type, the artistic and group appeal type, and the dynamic self-fulfillment type. The present research showed that the main thematic process of *Kangkangsulrai* is the artistic and psychodynamic group-oriented self-remedial experience. The research was able to show a cultural model of healing experience of folk group dancing practice among Koreans. This model shows direction for further research validating the model and the concepts and serves as a guide for understanding art therapeutic practice for Koreans.

Key words : *Kangkangsulrai*, *healing*, *art therapy*, *qualitative study*, *grounded theory*, *group Shinmyung*, *Koreans*